

제 4 강 20세기 수사학의 재비상

◆ 2교시 임상학을 통해 본 언어의 구조

▲ 실어증에 관한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의 이론

네, 그래서 좀 전까지 얘기 했던 것이 그 내적 원리, 그러니깐 고유한 법칙이 있는지. 그 다음에 외적 원리, ‘반박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하면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실재 대상이 있는지, 사변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실제의 그 현실세계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의 경우에는 철학에서 베르그송도 그랬고, 많은 저 20세기의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서 밝혀졌던 많은 그 이론들을 근거로 해서 다시 철학을 정립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 임상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첫 번째 원리 같은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또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잘못하면은 그 다시 또 환원주의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 타 학문으로써의 어떤 그 중복되는 종속되는 그런 걸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길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어증에 관련되는 그런 얘길 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언어학과 그리고 이제 수사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언급이 되는 학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논문이 있는데요.

이제 그 주목을 받는 하나의 그 작품이 뭐가 있었냐면,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실어증’에 관련된 그 소논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야콥슨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그 러시아 형식주의 있었죠?

문학 안에서의, 그 문학의 그 내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수사학적인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문학 자체 안에서의 문학성’이란 것. 문학의 어떤 본질을 두고 연구한 분야였는데.

▲ 문학의 고유성의 문제를 염려한 러시아 형식주의

이게 러시아에서 이게 논쟁이 됐었던 이유는 과거 그 당시 그 시대적 분위기 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러시아가 과거에 소련으로 국가의 체제가 변하는 과정에서 그 문학이라든지 그 밖의 다양한 것들을 이데올로기적인 수단으로써 사용했는데.

그 이론에 의하면, 민중들의 삶을 제대로 표현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은 문학이 아니다. 예를 든다면, 문학성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언어 안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무엇’을 다루느냐.

저거는 이제 부르주아들의 삶을 뭐 미화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저건 문학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공산혁명 이후로, 소련의 국가체제의 전복 이후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얘기됐고요.

사회학적인 혹은 정치학적인 측면을 떠나가지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문학 이론 안에서 어떤 그런 논쟁거리가 됐었던 거죠. 거기서 그 러시아의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무엇’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 좋은 문학이다 아니면 훌륭한 문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가치기준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학 자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의 순수한, 어떤 고유한 기준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이 러시아 형식주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 했던 그런 첫 번째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저 그 문학 이론을 논하는 데 있어서 부르주아 세계에 대한 어떤 전복, 그 다음에 프롤리타리아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차원으로 문학을 한다면 다른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건 문학이 따로 문학이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합리성을,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 그런 거는 물론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거는 다른 문제인거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까지 그것과 같이 하면은, 문학과 다른 영화와 또 기타 뭐 다른 것들, 뭐 미술에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 부르주아 미술과 그 다음에 민중미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유성이 뭐냐, 문학의 고유성이 뭐냐는 거죠. 문학이 다른 형식의 예술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을 배격하고자 하는 것이 ‘문학은 문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형식주의자였는데.

▲ 러시아에서 떠난 뒤의 야콥슨의 행보

상대적으로 그 당시 사회 배경에서는 소련에서 그 주장이 지지를 받을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여간 러시아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못됐었어요. 결국 나중에 야콥슨이라는 그 사람도 젊었을 때죠. 그때는 나중에 인제 무대를 옮기죠.

그러면서 무대를 옮겨가지고 소쉬르라는 사람을 책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그러면서 프라하학과에서 그 ‘투르베즈코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음운론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분야를 그 만들고 인제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또 인제 나중에는 그 뉴욕으로 건너가서 뉴욕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언어학자로서 활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세기를 휩쓸었던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뿌리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그 야콥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서 레비스트로스와 교류를 하면서 레비스트로스한테 인제 그런 소쉬르의 언어학 이론 같은 것들을 많이 전달을 하죠. 거기서 레비스트로스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인류학에 적용을 하고 시작한 것이 이제 구조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레비스트로스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왜 사망했잖아요. 100살인가 101살까지. 101살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0살인가 101살인가 그랬죠? 그래서 그때 그 생일날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그 사무실로 찾아가 생일축하 인사하는, 뭐 그만큼 프랑스 사람들의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인데. 어쨌든 그 구조주의의 시작이 그렇게 해서 그 위로 올라가면 야콥슨과의 교류를 거길 통해서 전달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 실어증에 관한 야콥슨의 논문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그 소논문 중에서 ‘실어증 분석을 통한 그 은유와 환유의 그 비교’ 그 다음에 뭐가 다른지 그 ‘차이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임상실험과의 어떤 그 결부 가능성의 기폭제가 됐던 거죠.

뭐냐면 그 전까지의 어떤 그 실어증을 분석해 놓은 그런 그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원리와 그 모순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언어의 고유성이라든가 그 안에서 내재적인 순수한, 논리적인 그 법칙 같은 것들이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그건 뭐 일단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언어학적인 이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기술을 하죠. 그러면서 일정한 유형의 그 말들을 하는, 비슷한 오류를 범하는 것끼리 묶고, 또 다른 쪽으로 비슷한 오류를 범하는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무슨, 무슨 환자’라고 명명하기에 이르죠.

그런데 그 중에 주목할 만한 두 가지 경우가 그 독일의 인제 베르니케라고 하는 사람이 명명한 그러니까 베르니케환자죠. 그 다음이 프랑스의 저기 생리학자였던 브로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어떤 그런 유형들을 모아서 브로카실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브로카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 베르니케 실어증과 브로카 실어증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론적인 어떤 설명이 부족한 예를 든다면, 베르니케 환자의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말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가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 식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반면에 브로카가 정리했던 환자의 유형들을 보면은, 반대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면 구성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을 만들 줄 모른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말이 구성이 안 되는, 구성을 못하는 거죠. 문장 하나도 구성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지만 대충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것 같다는 식이죠.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가지고, 물론 야콥슨 본인이 이제 그 임상학자는 아니었죠. 어쨌든 그런 예들을 분석을 해 보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베르니케나 그 브로카나 그 둘 다 소쉬르 이전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소쉬르의 그 이론과 적용을 시켜봤더니 뭔가가 굉장한 그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냥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말을 못한다’ 아니면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이 아니라, 언어학으로 가능한 설명이 이제 있다는 거죠.

▲ 은유와 환유

그거를 은유와 환유라고 하는 그 고유의, 옛날부터 있어 왔던 그 수사학적인 그 표현법 있죠. 그런 것들을 결부시켜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은유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은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대상을 얘기 하는데 있어가지고 대상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들어가지고 그걸 비교해준다, 예를 든다면 ‘리처드는 사자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리처드 얘기하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자라는 이름을 거기다 ‘내 마음은 호수’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호수가 이제 내 마음을 대신하는 거죠. 왜 호수라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뭐가를 끌어들어서 얘기하는 그런 거를 보통 전통적으로 은유라고 많이 했잖아요.

은유는 수사학의 꽃이라는 그런 얘기도 인제 많이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비유법인 거죠. 반면에 이제 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대상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는 식이죠.

예를 든다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한국식의 표현에서는 뭐가 가능할지 지금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버스가 파업했다’.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까지 안 가더라도 버스가 파업했다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면서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은 버스가 어떻게 파업을 해요? 사람이 파업을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버스는 기계인데 버스가 파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 그 버스의 기사가 파업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걸 갖다가 버스가 파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는 모차르트를 좋아한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 모차르트를 좋아한다고 하면 모차르트의 사랑에 빠졌다는 애한테 그건 아니죠?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지 모차르트의 뭐 사생활을 좋아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걸 갖다가 ‘모차르트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버스의 기사가 파업했다하는 것을 ‘버스가 파업했다’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런 식의 표현 그런 것들을 이제 환유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두 개의 그 언어활동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르카 환자와 베르니케 환자의 경우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한 그 어떤 그 공통점 유사성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 언어의 과학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 실어증에 대한 연구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이제 실어증은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이 와서 오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은데, 그 언어의 능력이 망가지는 실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 뇌의 어느 부분이 망가지면 어느 실어증이 온다, 이런 것은 밝혀져 있어요.

반면에 이제 그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그런 정신병들 많이 있다고 했죠. 실어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결부시켜 보면, 결국 ‘언어의 어느 부분이 망가지면은 어떠한 능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가능해진 거죠.

예를 든다면, 어떠한 능력을, 그러니까 저 환유의 능력이 상실된다든가, 언어의 어느 부분을 잃어버리면 은유의 능력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정상적인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그 언어가 무엇이냐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언어의 이 부분의 뇌가 언어의 은유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가, 그리고 이 부분의 뇌가 언어의 환유 부분을 담당한다든가, 이런 게 설명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언어학을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논문의 경우 그 이후로도 이제 후대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수정이 이제 가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논문 자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물론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굉장한 발견이었던 거죠. 그 기존의 언어학적인 어떤 모델과는 별개로 개발되어오던 실어증에 관련된 그 연구들하고, 그 소쉬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제 언어학 모델로 발견된 것들이 놀랄 정도의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것. 그런 발견이 시작된 논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뭐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언어학 안에서는 굉장한 역할을 했던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미진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 남아있는 과제

그런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베르니케 환자의 경우에 은유를 못하느냐, 은유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환유는 문제없느냐, 환유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브로카환자의 경우 역시 또 은유가 잘 안되느냐, 안 돼요. 그러면 환유는? 환유도 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은유와 환유라고 하는 것이 언어학적인 모델 안에서 단순히 은유의 능력, 환유의 능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다양한 메커니즘 안에서 이것 하나의 그 축과 다른 하나의 축이라는 걸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제가 하나의 예로 든 것이지 머릿속에 축이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구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축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 두 가지 축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은유가 발생하는 건지, 어떤 메커니즘을 작용해서 환유가 발생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 언어학의 과학적 진보에 기여한 야콥슨

그 논문 안에서는 그게 미스터리가 아직 남아 있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수사학>이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수사학이 그 제1권에 보면 제가 썼던 그 소논문이 그것과 관련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야콥슨이 다뤘던 그 이론이 그 언어학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고, 어떤 부분에서 아

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 언어학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 관련 글인데.

다시 말하면 언어학이 그 임상학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과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 야콥슨의 그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수사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맥락 안에서 언어학과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로 두 개가 관계가 정립될 수 있는지 그런 길을 열어 주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언어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던 그 ‘틀’ 안에서, ‘형식’ 안에서 다시 말하면 ‘문법’에 관련된 그런 분야.

그 다음에 수사학에서 다루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은유’라든가 ‘환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냐, 바로 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끈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는 구별능력을 상실한다

논문 안에서 그게 이제 크게 본다면 이런 거죠. 아까 그 두 개의 축이라고 하는 것이 환유와 은유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 했는데. 베르니케 환자의 경우 어떤 능력을 상실하는 환자라는 것이 차후에 밝혀졌다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 있는 그런 거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베르니케 환자들을 비교를 해보면, 뭐를 못하느냐면요. 그 예를 든다면 그 의미론적인 차원 뿐만이 아니라 문법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복수와 단수를 구별 못한다든가, 그러니까 복수라고 하는 것은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복수란 여럿이란 의미고, 보면 여러 개 있으면 복수잖아요? 하나 있으면 단수인 거고.

그렇지만 문법적인 차원 안에서도 복수와 단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지요! 한국어의 경우에는 ‘-들’자를 붙이는 ‘-들’이라고 하는 거, 복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문법적인 어떤 큰 중요성은 없죠, 한국에서는.

의미론적인 어떤 기능을 할 뿐이잖아요? 붙여도 되고 굳이 빼먹어도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하지 않는 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것을 ‘사람들’이 많다고, ‘들’자를 빼먹었다고 해서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는 거는 아니죠.

“사람이 여러 명인데 왜 ‘들’자를 뺐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은 없단 말예요. 근데 서양의 경우는 문법적으로도 그 복수의 개념이 굉장히 크게 중요하잖아요? 복수를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그 안에서 근데 그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의미론적인 차원에서의 그 복수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그 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말이죠.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그 순가락하고 젓가락하고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뭐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구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생긴 건 알죠. 어떻게 생겼는지 다 눈에 보이고 하는 건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베르니케가 그 환자였고. 그 다음에 브로커의 환자의 경우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은, 구별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성을 할 수 있는, ‘만들어 낸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별은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붙이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떼지를 못해요. 어디 얼마큼이 하나의 단위이고, 그걸 쪼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은 붙일 필요가 없고, 그걸 쪼개야 되는 거고. 이런 그런 단위의 능력이 상실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붙일 줄은 몰라요. 사람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한국어에서의 문법이라고 했을 때 그 규범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지만, 한국어의 규범은 사람 뒤에다 ‘들’을 붙일 때에는 그 중간에 공간을 떼지 말고 붙여야 되는 거죠? 이런 규범을 얘기하는 거고. ‘들’을 문법이 바뀌어서 ‘사람’과 ‘들’ 사이에 공간을 두자, 두 개 단어를 따로 취급 하자, 그런 건 규범의 문제죠.

그런 규범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특정한 규범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쓰는 거고, 규범을 모르면 틀리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는 새 갑자기 국문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난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의 틀렸다 맞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규범도 다 알고 있고, 다 앞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를 못한다던가, 이런 거에서 국문법을 몰라서 띄어쓰기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규범의 문제니까.

그게 아니라 알아도, 알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어디가 하나의 유닛, 뭐라고 할까요, 유니티라고 하나요? 하나의 단위라고 하는 것을 형성 못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베르니케 환자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고요.

▲ 소쉬르의 양분 논리 - 'AND'와 'OR'의 논리

그러면서 그 뒤로는, 우리가 인문학적인 임상학이라는 것을 한다면, 이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함정을 파놓고 그거를 들이 대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이걸 읽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오류를 범할 것이다, 이렇게 틀릴 것이다 이렇게. 이걸 읽어보라고 하면 아마 못 읽을 거다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지없이 이제 거기서 오류가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실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 했던 자연과학적인 실험 방법은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쉬르가 두 개의 축이라고 얘기했던 그게 이제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학적인 실어증환자들과, 그러니까 그 연구들과 언어학 안에서 만들어졌던 그 두 개의, 'AND' 와 'OR'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AND'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그리고 '이것'. '이것' 빼면 '이거 하나', 이런 개념들인 거죠. 구별, 구별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아 인간의 그 인식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수하고 서수의 구별을, 두 개의 차이를 한 번 보세요. 기수가 뭐고, 서수가 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결승점에 다다를 때에 그 선수를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중계에서 본단 말이죠?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는 기수를 써요, 그렇죠? '여덟 명의 선수가 있다'라는 기수를 써요. 그러면 '여덟 명'이라고 하는, 거기서 기수를 쓴다는 거죠. 근데 도착지점에서 이야기 할 때에는 기수를 쓰지 않아요, 서수를 써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등', '2등', '3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해 보면, 기수를 얘기할 때에는 질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여덟'에서 '팔'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여덟' 개 사이에서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면 안 되요, 똑같아요. 같은 선에 서 있어요. 똑같아요. 질적인 차이가 없어요. 양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여덟 명이 참석을 했는지, 한 명이 빠졌으면 일곱 명인지, 한 명이 기권을 했다면 아니면 두 명이 기권을 했다 그러면 여섯 명이 된다고. 여기서 '육', '칠', '팔' 이런 차이는 양적

인 차이 지 질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어떤 그 누가 잘하니 못하니 이런 이야기는 이야기 하지 않죠. 양적인 차이가 있죠. 질적인 차이는 없죠. 그런데 도착 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 할 때는, 항상 그 한 명이 예요. 항상. 도착하는 사람은 늘 한명이죠. 다시 말하면 양적인 변화는 없어요.

항상 하나예요. 근데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제일 낮다. 그 다음으로 낮다, 제일 못한다. 이런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양적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수와 서수의 차이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기수는 그러한 Quantity의 문제, '양의 문제'이고 Quality 문제가 아니에요. 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수의 문제에서는 바로 그 질의 문제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질과 양 사이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그 언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두 개, 아까 얘기했던 'AND'의 논리와 'OR'의 논리라는 거예요. 'OR'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AND'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 능력이 아니라 분절하고 덧붙이고 추가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 베르니케 실어증과 브로카 실어증에 의해 상실되는 능력

식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 언어를 우리가 구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걸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확하게 아파지아aphasia라고 하는 실어증이죠.

실어증에서 그 베르니케 실어증(Wernicke aphasia)과 브로카의 실어증Broca aphasia이 바로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베르니케 실어증의 경우, 베르니케 환자의 경우 그 질적인 구별을 하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망가진 경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브로카 아파지아(Broca aphasia)의 경우는, 브로카의 실어증의 환자들의 경우를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양적인 그 분석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성을 못하는 그런 경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두 개 축이 소쉬르가 얘기했던, 물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체가 소쉬르 이후로 야콥슨까지만 해도 아직도 의문점이 있어요. 그 뒤로 이제 더 연구가 되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언어의 능력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실어증을 통한, 다시 말하면 임상학적인 방법을 통한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수사학적으로 간다면 아니면 의미이론, 의미이론적으로 간다면 정확하게 은유와 환유의 그 적용이 된다는 거죠.

▲ 브로카 영역 - 구성의 능력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그 은유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양의 문제, 질의 문제. 그 베르니케축과 브로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순수한 하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할 때에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얘기할까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했다고 해봐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다면 그 안에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하고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하고 두 가지가 다 들어 있는 거죠.

‘사람’. 제가 정확하게 발음 내고 얘기를 한 거죠. ‘사라’ 한다면 ‘음’을 잊어버렸다면 그런 게 아닌 거죠. 구별을 정확하게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규범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조사이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목적으로 쓰인다면 ‘이’를 빼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 그런 걸 알고 있죠?

‘사람’까지만 발음하고 ‘이’는 빼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라미’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규범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린 아이들의 경우 세 살, 네 살 지나면서 한글을 배워 그러니까 국문법을 배워본 적도 없지만 정확하게 [사라미]라고 발음해도 [음]까지의 발음은 명사에 붙어있는 것이고 ‘이’라고 ‘이’라는 모음 하나가 조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그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브로카의 축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성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구성의 능력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규범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 베로니카 영역 - 구별의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성이 아니라 구별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죠. ‘사람’이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하고 ‘사랑’이라고 애길 하고 이게 이 구별 능력이 없으면,

물론 의미론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사람’과 ‘동물’ 이런 구별이 되겠지만 발음의 차원에서 보면 ‘사람’과 ‘사랑’의 구별이 되겠죠?

의미론적으로는 둘 사이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론적인 어떤 구별이든 간에 아니면 음성학적인 구별이든 간에 그 사이에서 구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 언어 실재에서는 구성능력과 구별능력이 모두 사용된다

‘사람’이라고 했다가 ‘사랑’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써도, 그 안에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다시 말하면 베르니케 축의 능력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그 브로카 축의 능력을 다 갖췄기 때문에 다 한 단어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은유를 우리가 구사할 때도 그 두 가지 능력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환유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 베르니케 환자의 경우 다시 말하면 변별능력을 상실한 그런 환자들이 경우에는 은유를 구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브로카 환자의 경우도 은유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유형이 달라요.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비유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 본다면 말이죠, 우리가 현상을 놓고 그대로 그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실어증 환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특정한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손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망가지면은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과도한 어떤 그 사용을 하게 되요. 그래서 우리가 곁에 보기에,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쪽이 뭔가가 결손이 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퍼 날라요.

그러면 우리가 곁에서 보기에 이쪽이 멀쩡해 보여요. 오히려 이쪽이 망가져 부족해 보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핏 보기에 이쪽이 망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이쪽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잘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까 제가 함정, 일종의 함정 수사죠? 함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보면, 아 결코 그게 아니라 이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너무 갖다 부었구나!

우리가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아프면 오른쪽 다리가 힘이 많이 가요. 그렇죠? 조금 있다 보면 왼쪽보다 오히려 오른쪽이 더 아파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의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갖다가 하죠. 이쪽에서 오히려 더 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 임상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겉으로 보이는 걸 놓고 그대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제.

그래서 은유와 환유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유와 환유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문법적인 차원에서의 그 구성을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그 구별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사랑’, ‘사람’ 뭐 이런 거하고 ‘사람’까진지 ‘사라’까진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그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그게 자연의 차원으로 오면 마찬가지로 되요.

▲ 지각의 차원에서 본 구별과 구성 능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각의 차원에서 보면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다 그거를 이제 그걸 동일한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놓고 본다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각의 차원에서 그건 실어증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각의 차원에서 두 개의 능력이 망가지는 경우를 보면, 예를 든다면 그 책상 위에 아니 의자, 의자라고 하죠. 이건 실제로 그 임상실험의 결과니까.

의자 위에 고양이를 얹혀놓고 찍은 사진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방바닥 위에 저 의자가 있죠? 저 위에 고양이가 있죠? 우리가 보면 보통 이렇게 지각을 해요. 어디까지가, 뭐가 방이고, 뭐가 의자고, 뭐가 고양이인지가 구별이 가는 거죠.

근데 어떤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 이미지의 구성’을 제대로 못하는 환자들의 경우는 이걸 끊지를 못해요. 어디까지가 끊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다 붙어 있으니까 다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언어에서 다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듯이 이미지가 다 붙어 있는 이걸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의자의 다리 네 개가 고양이 다리인지 아니면 건물의 일부분인지, 고양이가 전체가 건물의 일부분인지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다 붙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작게 얘기하면 고양이 자체가 하나의 단위 구성

을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 따로 꼬리 따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인제 이미지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게 인제 구성의 문제인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구별이 안가는 경우는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고양이를 봤는데 고양인지 뭔지 구별이 안가는 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 언어의 구조 - 구별과 구성의 두 축

근데 그게 그 시각 이전에 우리가 감각의 차원이라고 있잖아요? 감각의 차원에서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감각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각, 이런 거죠. 빛이 있고 그 앞에 사물이 있고 그럼 빛을 빛이 반사를 통해가지고 감지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각의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구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두 가지 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이 그 quality와 quantity의 두 개의 차원에서 문제라는 것은 시각의 차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언어의 형식의 차원에서도 단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의미의 문제에서 환유의 능력이라든가 그 의미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의미의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모든 영역을 흐르는, 관통하는 그런 능력. 그것이 아까 얘기 했던 그 두 개의 축, 구별하는 능력하고 구성을 하는 능력. 그 두 개의 능력이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그 언어에 있어 기본적인 틀이 된다는 거죠.

▲ 언어의 구조 -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두 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야기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1주차 2주차 때, 시니피앙-시니피에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거기서는 ‘면’이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면이든 축이든 그건 하나의 비유적인 이미지지, 무슨 머릿속에 축이 있고 면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뭐, DNA 나선형 이런 것처럼, DNA가 실제로 나선형인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려 놓은 것이지 DNA가 진짜로 돌면서 그렇게 있다는 거는 아니죠.

그런 것처럼 두 개의 면, 왜냐면 소쉬르가 동전의 두 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개의

그 면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측면, 그거는 지금 얘기한 거하고 다른 측면이었어요.

의미하는 주체와 그 주체가 의미하는 객체 사이에서의 문제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이의 문제가 옛날에는 소리와 개념 사이의 그런 관계였는데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소리의 추상적인 어떤 체계’와 ‘개념의 추상적인 체계’ 사이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 두 개의 면이 언어의 안에 있다는 그런 얘기였었죠? 그 다음에 또 오늘 좀 전까지 얘기했던 것이 두 개의 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구별의 능력’과 그 다음에 ‘구성의 능력’.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섞느냐, 이런 것이 이제 그 은유와 환유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변증법적으로 살펴볼 언어의 구조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이외에도 물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다음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또 하나가 이제 그 사실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씩 진도가 밀려서 그래요.

변증법이란 얘기를 제가 전에 잠깐 했었죠? 그 변증법이라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런 의미에서의 변증법 말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뜻으로 변증법을 썼다는 것은 3주차 때 얘기를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의 변증법 말고, 헤겔 이후로. 그래서 헤겔 이야기가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 헤겔 이후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변증법.

물론 그 이후로도 마르크스는 그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개념으로 썼지만. 역사적인 시간을 두고, 시간적 선후 문제가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관계에서의 대립 관계, 부정과 그 다음에 합쳐진 그런 관계.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설명으로 우리가 언어를 살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잖아요. 그 처음에 있는 것과 결국 마지막으로 생긴 것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있는 어떤 그 모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순이라고 하는 개념, 그것을 이제 또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얘기 했던 두 개의 면, 두 개의 축 이것들을 또 이렇게. 이게 문법이나 아니면 수사나 뭐 그런 차원 아니면 관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참 실제, 저 실제 지각 세계나, 그런 것들의 구별을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두 개의 축이 지각 세계도 있고, 문법 세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의미론적인 혹은 수사학

적인 그런 체계 안에서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똑같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 얘기될 수 있는 ‘두 개의 면’이 우리가 이제 ‘소리와 관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어학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소리의 추상 체계’와 ‘의미의 추상 체계’ 사이에서의 면이라고 얘기 했었잖아요. 그 두 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것, 그 다음에 지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물들도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두 개의 면에 그 대립, 대립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면 혼동을 일으키니까 대립이라고 하지 말고 둘 사이의 연관 관계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각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사이에서 그 지각도 언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변증법적인 개념이죠. 변증법적 개념을 가지면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진도가 밀려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